

의식 개혁

김성훈/생명의전화 상담부장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전 외국에서 전자오락에 의한 간질발작증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곧이어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똑같은 증상으로 한 어린이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중이라 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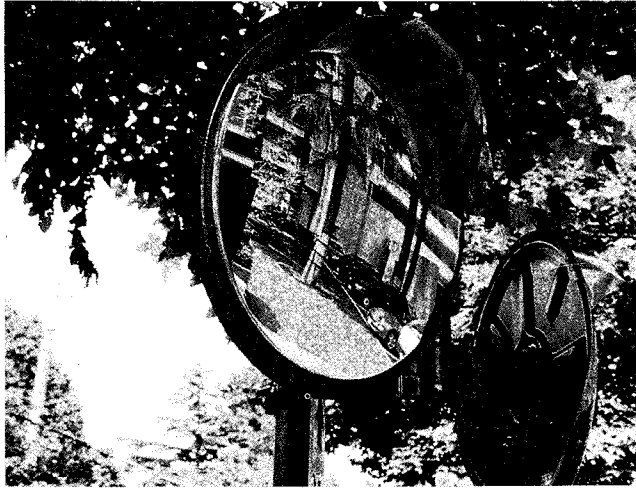
전자오락에 의한 이 발작증상은 이미 예견되어온 일이라는 것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네 가구당 하나의 전자오락기가 보급되어 선진국과 대동소이한 놀라운 보급률이지만, 그에 대해 예비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아직 선진문화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것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똑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되자 많은 전문의나 전문가가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여 그 방면의 수준 또한 우리도 선진국에 전혀 손색이 없겠으나, 그와같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격으로 제시되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문명이라는 것은 그 반작용으로 반드시 우리의 정신문화에 상처를 주곤 한다. 수없이 겪는 현상이다. 마치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처럼 느껴지곤 한다. 교통문제가 그랬고 환경문제도 그렇

다. 소득이 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은 점점 복잡다양해져, 편리하게 되어 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골치아픈 현상도 상상의 수준을 넘는다.

인간을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이게 하는 것이 문명이라면, 그에 준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견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문화이겠다. 이것은 서로를 활성화시켜 탐구하고, 개척하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결코 반대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대문명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간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과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학문 또한 한마디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을게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점만을 던져준다는게 어디 말이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사학(邪學)이 아닌가. 학문하는 이에게 모든 책임을 지을 수는 없겠다. 그 자신은 정말 선한 의미로 연구한 결과가 엉뚱한 이들로 말미암아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에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제도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굴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그렇게 알고 있다. 법이 그렇고 사회 규범이 그렇고 우리네 도덕과 윤리가 그렇다. 서로가 같이 살아가며 그에 맞는 최선이 바로 법이요, 규범이요, 도덕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단지 제도일 뿐, 정말 그 때문에 서로가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옳바르게 산다는게 바로 그 도덕과 규범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한 자세라면, 오늘날 그러한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당한다고 다들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낙오되어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정부가 탄생될 때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만큼

그 댓가를 받아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천명하곤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약으로 끝나버렸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그런 약속이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는가.

이 물음은 꼭 답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우문과 같겠으니 이번에는 한쪽편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우리네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이제는 자동차 수출대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큰 발전을 하였는지 스스로도 감탄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탁월한 지도자와 성실한 근로자들의 멋진 화합의 결과이리라.

처음 나왔던 국산 자동차와 현재의 만 들어지는 자동차의 양과 질을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 놀라울만큼 발전하였다. 그런데 교통문화는 오히려

“

의식의 성장없이
 는 아니 의식의
 개혁이 없고서는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솔선수범
 하는 자세
 없이는, 나눔과
 섬김 없이는 이
 세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크게 퇴보한 듯 보인다. 아니 크게 후퇴한 정도가 아니라 더할 나위없이 악화되었다. 이런 말들을 농담삼아 한다. 차를 몰면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교수님이건 욕을 안할 수 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문명의 혜택 때문에 소위 교양머리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고속도로에 나가 140, 160으로 밟아 보니 정말 달릴만 하였다느니, 대전까지 1시간에 주파 하였다느니 하며 자신의 차와 운전 솜씨를 과시한다.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에서 최고 시속은 중부고속도로에서 110km라고 한 것을 보았을 터인데 그러한 불법주행을 자랑하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은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상욕을 하는 것도, 불법을 하고서도 당연한 듯한 것일까.

도덕과 양심, 법과 규범이 무참히 짓밟아지는 한 단면이다. 자동차 산업의 발전상, 자동차 문명의 눈부신 발달상은 분명 선진국화 되었는데, 왜 자동차 문화는 후진국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것인가.

자동차 문화만이 아니다. 이러한 예는 너무도 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만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은 반비례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가. 잘살아 보자는 구호는 분명 경제적, 산업적인 면만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닐텐데, 어찌됐건 결과는 잘입고 잘먹는 외견상의 발전만을 강조한 듯하여 외형상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나 내적인 의식의 부분은 형편없이 쳐져버렸다. 의식의 성장없이, 아니 의식의 개혁이 없고서는 절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자세 없이는, 나눔과 섬김 없이는 이 세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입시부정과 같은 연례행사도 이러한 정신개혁 없이는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텅텅 빈 국회도서관도 국회의원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산에서 취사하지 못한다는 물리적 강제력이 동원되어 정말 좋아진 듯하나, 산에 가서 정말 산을 대하여 즐겁고 명량한 기분이 되어 돌아 오느냐면 그렇지 않다. 입구에서부터 늘어난 자동차, 즐비하게 늘어난 무허가 음식점, 잡상인, 마구 파헤쳐 산길인지 도로인지, 산인지 별장지대인지 모를 그 모습에 유쾌한 기분이 사라진다.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변화되지 못하기에, 의식의 개혁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김영삼 대통령의 국민의식개혁 운동이 첫머리를, 그래서 학수고대 한다. 그러나 우리모두 나부터 개혁대상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